
대학생의 학교진로지원, 진로장벽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저자 김서진, 박수빈, 백다혜, 임정현, 조경진, 최소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4학년 2조

Effect of career support from college and career-barrier on college student's career exploration.

Seo Jin Kim, Su Bin Park, Da Hye Baek, Jeong Hyun Lim, Gyung Jin Jo, So Eun Choi

초록

목적: 진로는 삶의 과정 중 중요한 요소이나, 대학생들은 적절한 진로탐색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대학생들의 진로탐색행동을 증진하고자 본 연구는 학교진로지원과 진로장벽이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2016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소재 Y대학교 대학생 3, 4학년 29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설문 내용에는 학교진로지원, 진로장벽, 진로탐색행동 및 일반사항을 포함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통해 t-test, one way ANOVA, 상관관계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 전체 대학생의 학교진로지원, 진로장벽, 진로탐색행동의 평균은 각각 65.85(±19.68), 90.21(±17.80), 64.77(±19.16)로 나타났다. 학교진로지원과 진로탐색행동 사이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41, p < .001$.

논의: 학교진로지원이 높을수록 진로탐색행동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왔다. 학교의 지지가 진로탐색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진로장벽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대학생의 진로에 있어 학교의 중요성을 밝혀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학교 진로지원서비스의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용률 제고를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key word: 학교진로지원, 진로장벽, 진로탐색행동, 진로, 대학생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에 있어 진로는 삶의 과정 중 필수적인 과업이며, 진로에 대한 의사 결정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하다(최윤정, 2015). 특히 대학 시기는 진로 발달 단계 중 탐색기를

거쳐 확립기로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박현숙, 권복순, 2006), 대학생 스스로 자아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적절한 진로 탐색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 현실에 있다. 입시 위주의 진로 지도, 자기 이해의 부족, 부모 중심의 진로

선택 등으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문인오, 이경완 2010). 더불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5월 한국 청년실업률이 10.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통계청, 2016). 이런 상황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탐색을 바탕으로 적절한 진로 탐색 행동을 하기 보다는 취업이 잘 되는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거나 진로탐색행동을 하지 않고, 아예 취업을 보류하며 대학원에 가거나 다른 교육기관으로 가기도 한다(박주현, 유성경, 2012).

진로탐색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진로탐색행동 적절하지 않을 경우 대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진로탐색행동을 적게 한 대학생들은 구직 성과가 더 낮다는 결과가 나타났다(이지영 외, 2005). 또한 적절한 진로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직업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진로에 대한 탐색이 없었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고, 심리적 부적응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간호 대학생들의 경우 높은 취업률로 낮은 진로 탐색행동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이경아, 김진현, 2015; 조희, 이규영, 2006), 향후 간호사라는 직업에서 불만족과 이직을 야기하게 된다(문인오, 이경완, 2010). 따라서 진로탐색행동은 진로 결정과 향후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하기에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또한 변인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진로탐색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개인이 진로탐색행동을 하는데 있어 개인내적요소와 개인외적요소인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주게 된다. 이를 참고하여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환경 요인의 종류에는 부모와의 애착, 사회적 지지, 학교진로지원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진로지원을 환경 변인으로 선택하였는데, 학교진로지원이란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 지원을 포괄한 개념이다(곽민호, 2012). 학교진로지원은 그간 진로 관련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지지와 다소 구분되는 개념인데, 기존의 사회

적 지지가 인간관계에서의 지지만을 의미했다면, 학교진로지원은 인간관계를 포함하여 학교에서 제공하는 여러 사회적 서비스를 포괄한다. 학교진로지원을 변인으로 선택한 이유는, 기존의 연구들의 경우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로 부모와의 애착 등과 같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진로지원 또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거시적인 효과수준만을 연구한 논문들이 대다수이다. 하지만 대학생 시기는 다양한 자원의 탐색이 가능하며 보다 자율성이 증가하는 시기이기에 이러한 기존의 연구만으로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다. 또한 대학의 역할이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할 고급인력을 양성하며, 질적인 교육과 연구를 확충하여 우수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것인 만큼(교육과학기술부, 2016), 대학생들에게 학교진로지원이 미치는 영향 탐색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진로지원을 중점적으로 보고자 한다.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내적변인으로는 자기효능감, 의사결정능력, 진로장벽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진로 장벽을 중점적으로 보고자 한다. 진로 장벽이란 “개인의 진로관련 목표를 향하여 계획에 따라 여러 경험들을 수행해 내가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부정적인 사건이나 사태”를 의미한다(강윤심, 2010). 실업률이 높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대학생들이 느끼는 진로장벽의 수준이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이 지각하는 진로 장벽의 수준에 따라 진로탐색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손은령, 2002). 그런데 진로장벽이 진로탐색행동에 정적 혹은 부적 영향을 갖는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김선중, 2005; 손은령, 2002; Swanson & Tokar, 1991). 이는 진로장벽을 많이 지각할 때 일찌감치 포기하고 별다른 진로탐색행동 없이 진로를 선택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많은 진로탐색을 통해 적절한 진로를 찾기도 한다는 것이다. 해당 연구에서

는 정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경쟁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진로장벽은 행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유승혜, 2011). 이처럼 진로 장벽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진로 장벽을 파악하고 관계를 알아보아서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유채은, 조규관, 2012).

학교진로지원, 진로 장벽과 진로탐색행동을 종합하여 적용해보면, 학교진로지원이 존재해도 개인이 느끼는 진로 장벽 수준에 따라 진로 탐색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즉, 학교진로지원이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를 진로 장벽이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진로지원, 진로 장벽과 진로탐색행동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진로탐색행동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학교진로지원과 진로장벽이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대학생의 학교진로지원, 진로장벽, 진로 탐색행동 수준을 알아본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진로지원, 진로 장벽, 진로탐색행동의 수준을 비교한다.
- 3) 대학생의 학교진로지원, 진로장벽, 진로 탐색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본다.
- 4) 학교진로지원과 진로탐색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탐색해본다.

3. 연구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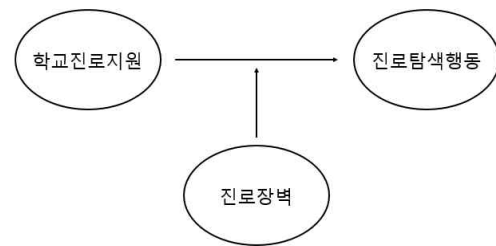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학교진로지원과 지각된 진로장벽, 진로탐색행동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때 학교진로지원과 진로탐색행동의 주 관계를 파악하고, 이때 지각된 진로장벽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해당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고, 가설적 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가설 1. 학교진로지원은 진로탐색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2. 지각된 진로 장벽은 학교진로지원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그림 1. 연구 가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교진로지원, 진로장벽과 진로탐색 행동 간의 관계를 알기위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설문지를 통한 조사로 횡단적 조사연구에 해당한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Y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3, 4학년 학부생을 포함한 Y대학교 3, 4학년 학부생을 임의표출방법으로 선정하여 시행하였다. 학과는 간호학과(RN-BSN 제외), 문과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이과대학, 공과대학, 시스템생명대학, 신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음악대학, 생활과학대학, 교육과학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의 총 14개 단과대학으로 조사되었다. 집단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는 휴학생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수는 G*power 3.1 program에서 효과크기(d)=0.3, 유의수준 (α)=0.05, 검정력($1-\beta$)=0.8로 설정하여 282 명으로 산출되었다. 학부수준에서 탈락률을 20%정도 고려하여 총 3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291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3. 연구도구

학교진로지원

학교진로지원은 곽민호(2012)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정보적 지원 7문항, 실제적 지원 8문항, 정서적 지원 10문항으로 총 25문항에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정보적 지원영역의 $\alpha=0.89$, 실제적 지원 영역의 $\alpha=0.89$, 정서적 지원영역의 $\alpha=0.91$ 로 측정되었으며 전체 도구의 $\alpha=0.96$ 로 측정되었다. 또한 곽민호(2012)의 연구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문항분석을 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전문가 9인의 검토를 받은 결과 타당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 도구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진로탐색행동

진로탐색행동은 최동선(2003)이 개발한 '대학생용 진로탐색행동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진로의 선택 및 결정을 위한 다양한 매체와 경로를 통한 진로탐색행동은 지난 6개월간 어느정도 수행하였는지 측정하는 도구로 자신에 대한 탐색에 관한 12문항과 직업에 대한 탐색에 관한 16문항에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자신에 관한 탐색 영역에서 $\alpha=0.85$, 직업에 대한 탐색 영역에서 $\alpha=0.89$, 전체 검사에 대해서는 $\alpha=0.93$ 로 측정되었다. 또한 최동선(2003)의 연구에서 구인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예비조사를 한 결과 공인타당도를 지니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 연구도구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진로장벽

진로장벽은 김은영(2001)이 개발한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를 사용하였다. 총 45문항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대인관계 어려움 5문항, 자기명확성부족 7문항, 경제적 어려움 5문항,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5문항, 직업정보부족 5문항, 나이문제 4문항, 신체적 열등감 4문항, 흥미부족 4문항, 미래불안 6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요인별로 대인관계 어려움 $\alpha=0.81$, 자기명확성 부족 $\alpha=0.76$, 경제적 어려움 $\alpha=0.81$,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alpha=0.70$, 직업정보 부족 $\alpha=0.77$, 나이문제 $\alpha=0.86$, 신체적 열등감 $\alpha=0.86$, 흥미부족 $\alpha=0.25$, 미래 불안 $\alpha=0.76$ 이었고,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alpha=0.90$ 이었다. 김은영(2001)의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를 통하여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 도구의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일반적 사항

설문지를 통하여 대상자의 학년, 연령, 대상자가 속한 단과대학 종류, 대학 졸업 후의 진로 결정 여부, 결정한 진로의 종류, 진로 미결정의 이유, 진로와 전공의 관련성, 진로 결정의 기준, 주관적 경제수준, 학교 진로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진로 결정에 영향력을 준 사람, 학교의 진로지원이 진로 결정에 준 도움의 정도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연구 진행에 대하여 IRB의 승인을 받았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에 이루어졌다. 서울 소재 Y대학교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보장에 대해

여 설명하였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자에게 설문을 시행하였다. 참가자가 동의하여 설문에 응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연구자가 직접 준비된 설문지(일반적 사항, 학교진로지원, 진로장벽, 진로탐색행동)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람당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대상자에게 설문 응답 후 사후 설명서를 제공하였으며,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총 320부를 배부하여 총 291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0.9% 정도였다. 응답이 모두 충실하다 판단되어 회수된 291부를 본 연구를 위해 최종 분석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학교진로지원과 진로장벽, 진로탐색행동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진로지원, 진로장벽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 학교진로지원, 진로장벽과 진로탐색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학교진로지원, 진로장벽과 진로탐색행동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로 분석하였다.
- 학교진로지원과 진로탐색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이 미치는 조절 효과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1).

대상자 291명 중 남학생은 127명(43.6%), 여학생은 164명(56.4%)이다. 3학년은 168명(57.7%), 4학년은 123명(42.3%)이다. 학과별 인원은 가장 많은 순서대로 공과대학 90명(30.9%), 간호대학 87명(29.9%), 문과대학 52명(17.9%), 기타(생활과학대학, 생명시스템대학, 교육과학대학, 이과대학, 상경대학, 사회과학대학 등) 62명(21.3%)이다.

경제 관련 요인으로 개인이 생각하는 경제수준을 물어본 결과, 상 108명(37.1%), 중 137명(47.1%), 하 43명(14.7%)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 중 진로 결정을 한 사람이 225명(77.3%)로, 그 중 결정한 진로는 취업이 183명(72.4%)으로 제일 많았다. 결정한 진로와 전공과의 상관성은 대다수가 그렇다 179명(79.6%)라고 대답하였다.

전체 대상자 중 진로 결정을 하지 않은 사람은 64명(22.0%)이다. 진로 결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진로 관련 정보 부족이 가장 많았고, 적성·흥미 모호, 진로자신감 부족 등이 있었다.

본인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본인이 154명(52.9%)로 가장 많았다.

학교진로지원서비스(예: 멘토링, 취업 설명회 등)를 이용해봤는지 물어본 결과, 이용해 본 대상자는 74명(25.4%), 이용해보지 않은 대상자는 217명(74.6%)로 나타났다. 학교진로지원서비스가 미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사람이 60명(20.6%), 보통이다 143명(49.1%), 그렇지 않다 88명(30.2%)로 나타났다.

2. 학교진로지원, 진로장벽, 진로탐색행동

전체 대상자의 학교진로지원은 $M = 65.85$, $SD = 19.68$ 로 나타났다. 학교진로지원의 하위 요인인 정보적 지원, 실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의 각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나타나있다.

전체 대상자의 진로장벽은 $M = 90.21$, $SD = 17.80$ 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의 하위 요인인 대인관계 어려움,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 정보 부족, 나이 문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부족, 미래 불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 = 291)

변인	분류	n(%)	
성별	남	127(43.6%)	
	여	164(56.4%)	
학년	3학년	168(57.7%)	
	4학년	123(42.3%)	
단과대학	공과대학	90(30.9%)	
	간호대학	87(29.9%)	
	문과대학	52(17.9%)	
	기타	62(21.3%)	
본인이 생각하는 경제 수준	상	108(37.1%)	
	중	137(47.1%)	
	하	43(14.7%)	
진로결정여부	진로결정 했음	225(77.3%)	
	진로결정 안 했음	64(22.0%)	
	무응답	2(0.7%)	
진로결정 했음 (n = 225)	이후 결정 진로	취업	183(72.4%)
		상급학교 진학·공부	33(14.7%)
		시험준비	21(9.3%)
		기타	9(3.6%)
	진로와 전공 상관성	매우 그렇다	137(60.9%)
		그렇다	42(18.7%)
		보통	15(6.7%)
		그렇지 않다	21(9.3%)
		전혀 그렇지 않다	10(4.4%)
	진로 결정 기준 (복수응답)	적성·흥미	144(64.0%)
		전공과 관련성	137(60.8%)
		연봉	105(46.6%)
		안정성	99(44.0%)
명예		34(15.1%)	
복지		32(14.2%)	
기타	2(0.8%)		
진로결정 안 했음 (n = 64)	진로 미결정 이유 (복수응답)	진로 관련 정보 부족	35(54.6%)
		적성·흥미 모호	34(53.1%)
		진로 자신감 부족	26(40.6%)
		결정 시간이 충분함	23(35.9%)
		전공과의 불일치	16(25.0%)
		부모님과 의견차	8(12.5%)
		기타	1(1.5%)
		진로 결정에 가장 영향 주는 사람	본인
부모	52(17.9%)		
친구, 선배	42(14.4%)		
교수님·조교 등 멘토	29(10.0%)		
형제자매	14(4.8%)		
학교진로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예	74(25.4%)	
	아니오	217(74.6%)	
학교의 미래 진로 결정 도움 여부	그렇다	60(20.6%)	
	보통이다	143(49.1%)	
	그렇지 않다	88(30.2%)	

표 2. 주요 변수, 하위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항목	하위 요인	전체 (<i>n</i> = 291)
		<i>M</i> (<i>SD</i>)
학교진로지원	정보적 지원	18.88(5.85)
	실제적 지원	20.49(6.63)
	정서적 지원	26.48(8.46)
	총합	65.85(19.68)
진로장벽	대인관계 어려움	11.35(2.78)
	자기명확성 부족	12.36(3.03)
	경제적 어려움	10.00(3.33)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9.19(2.79)
	직업 정보 부족	12.02(2.97)
	나이 문제	6.69(2.76)
	신체적 열등감	6.43(2.64)
	흥미부족	9.05(3.92)
	미래 불안	13.12(3.62)
	총합	90.21(17.80)
진로탐색행동	자신에 대한 탐색	29.16(8.71)
	직업에 대한 탐색	35.62(11.59)
	총합	64.77(19.16)

안에 대한 각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전체 대상자의 진로탐색행동은 $M = 64.77$, $SD = 19.16$ 으로 나타났다. 진로탐색행동의 하위 요인인 자신에 대한 탐색, 직업에 대한 탐색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일반적 사항과 학교진로지원, 진로장벽, 진로탐색행동 사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일반적 사항 중 유의미했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년에 따라 학교진로지원의 차이가 유의미했다, $t(289) = 2.86$, $p = .008$. 단과대학에 따른 학교진로지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3, 287) = 6.41$, $p < .001$. 이후 Scheffe 사후검정 결과 공과대학이 문과대학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3$. 또한 간호대학이 문과대학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진로장벽에서도 단과대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3, 287) = 6.92$, $p < .001$. Scheffe 사후분석 결과 공과대학이 문과대학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11$. 간호대학 역시 문과대학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본인이 생각하는 경제수준에 따라 진로장벽의

차이가 유의미했다, $F(4, 283) = 13.56$, $p < .001$. Scheffe 사후검정 결과, 본인이 생각하는 경제수준이 ‘상’인 집단이 ‘중’인 집단보다 진로장벽이 유의하게 낮았다, $p = .004$. 본인이 생각하는 경제 수준이 ‘중’인 집단이 ‘하’인 집단보다 진로장벽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p = .012$. 진로결정에 가장 영향력 주는 사람에 따라 학교진로지원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4, 283) = 2.82$, $p = .047$. Scheffe 사후분석 결과, 진로결정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부모인 경우 본인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은 학교진로지원이 있었다, $p = .043$. 또한 학교진로지원 서비스(예: 멘토링, 취업상담회, 진로상담센터 등) 이용 여부에 따라 학교진로지원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이용한 적이 없는 사람보다 유의미하게 진로지원이 높았다, $t(289) = 3.76$, $p < .001$. 학교진로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진로탐색행동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유의미하게 진로탐색행동 수준이 높았다, $t(289) = 2.48$, $p = .14$. 학교의 진로지원서비스가 미래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됐는지의 여부는 진로장벽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3. 일반적 사항에 따른 주요 변수 차이

(n = 291)

변인	분류	학교진로지원		진로장벽		진로탐색행동			
		M±SD	t / F Scheffe	M±SD	t / F Scheffe	M±SD	t / F Scheffe		
성별	남	67.30±19.31	1.10	89.36±19.95	-.72	65.72±18.95	.74		
	여	64.73±19.95		90.87±17.91		64.04±19.34			
학년	3학년	68.64±19.66	2.86**	88.93±17.36	-1.43	64.29±20.46	-.50		
	4학년	62.05±19.15		91.96±18.32		65.43±17.27			
단과대학	공과대학 ^a	68.90±18.74	6.41***	89.51±18.23	6.92***	66.10±19.76	.22		
	간호대학 ^b	69.55±19.63		86.25±16.17		64.38±18.88			
	문과대학 ^c	56.15±19.24		a,b>c		99.69±17.90		a,b<c	63.75±20.58
	기타 ^d	64.37±18.98		88.84±16.85		64.26±17.73			
본인이 생각하는 경제수준	상 ^a	67.81±19.72	.952	84.71±15.52	15.16***	65.40±18.34	1.19		
	중 ^b	64.63±18.75		92.00±15.09		63.80±18.53			
	하 ^c	67.70±20.19		100.79±23.38		68.86±21.16			
진로결정 가장 영향력 주는 사람	멘토 ^a	66.28±19.84	2.82*	91.17±19.90	2.27	68.76±19.09	2.26		
	부모 ^b	72.31±18.73		94.87±20.65		67.44±18.24			
	형제자매 ^c	60.43±22.11		b>e		93.50±17.11		55.36±15.24	
	친구선배 ^d	69.40±16.20		92.98±16.11		68.71±19.92			
	본인 ^e	63.12±20.13		87.41±16.53		62.90±19.25			
학교 진로지원 서비스 이용여부	예	68.33±19.30	3.76***	89.28±17.88	-.52	69.50±17.93	2.48*		
	아니오	58.59±19.10		90.53±17.81		63.16±19.33			
학교가 미래진로 결정에 도움 여부	그렇다 ^a	63.93±19.85	.62	94.13±16.82	3.10*	65.22±18.98	.04		
	보통이다 ^b	66.85±18.79		88.38±17.54		64.54±19.11			
	아니다 ^c	66.28±21.56		88.83±19.18		64.68±19.83			

*p < .05 ** p < .01 *** p < .001

F(2, 288) = 3.10, p = .046. Scheffe 사후분석 결과 학교 진로지원서비스가 도움이 됐다고 한 집단('그렇다')이 '보통이다'라고 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진로장벽이 높았다, p = .048.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기 위해 진로결정 여부에 따라 학교진로지원, 진로장벽, 진로탐색행동과 각 하위 요인에 대한 t-test를 실시하였다. 학교진로지원 총 점수에서 진로결정을 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288) = 4.58, p < .001. 학교진로지원의 구성 요소인

정보적 지원(t(288) = 4.97, p < .001)과 실제적 지원(t(288) = 4.63, p < .001), 정서적 지원(t(288) = 3.57, p < .001)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진로탐색행동 총 점수에서도 진로결정을 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288) = 4.81, p < .001. 진로탐색행동의 구성 요소인 자신에 대한 탐색(t(288) = 4.19, p < .001)과 직업에 대한 탐색(t(288) = 4.75, p < .001)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진로장벽에서도 두 집

표 4. 진로결정 여부에 따른 t-test

분류		진로결정 _o (n = 225) M(SD)	진로결정 _x (n = 64) M(SD)	t
학교 진로 지원	정보적 지원	19.75(5.73)	15.78(5.26)	4.97***
	실제적 지원	21.40(6.34)	17.19(6.68)	4.63***
	정서적 지원	27.40(8.27)	23.20(8.40)	3.57***
	총합	68.54(18.92)	56.17(19.51)	4.58***
진로 장벽	대인관계 어려움	11.41(2.80)	11.14(2.74)	.68
	자기명확성 부족	12.21(3.04)	12.84(3.00)	-1.47
	경제적 어려움	9.84(3.18)	10.48(3.83)	-1.36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9.04(2.64)	9.64(3.21)	-1.54
	직업 정보 부족	11.39(2.67)	14.22(2.95)	-7.31***
	나이 문제	6.52(2.67)	7.20(3.01)	-1.74
	신체적 열등감	6.31(2.46)	6.77(3.19)	-1.23
	흥미부족	9.00(4.26)	9.19(2.43)	-.33
	미래 불안	12.69(3.28)	14.59(4.33)	-3.80***
	총합	88.41(16.67)	96.08(20.40)	-3.08**
진로 탐색 행동	자신에 대한 탐색	30.27(8.65)	25.22(7.92)	4.19***
	직업에 대한 탐색	37.28(11.66)	29.72(9.46)	4.75***
	총합	67.55(19.21)	54.94(15.84)	4.81***

* $p < .05$ ** $p < .01$ *** $p < .001$

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288) = -3.08$, $p = .002$. 진로장벽의 구성 요소인 직업 정보 부족($t(288) = -7.31$, $p < .001$)과 미래 불안($t(288) = -3.80$, $p <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진로지원, 진로장벽, 진로탐색행동 사이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각 변인별 총 점수에 따른 상관을 살펴보면 진로탐색행동은 학교진로지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41$, $p < .001$. 학교진로지원과 진로장벽의 상관관계($r = .11$, $p = .059$), 진로장벽과 진로탐색행동의 상관관계($r = .05$, $p = .054$)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별 하위 요인에 따른 상관이 몇몇 나타났다. 각 하위 요인별 상관은 표5에 나타나있다.

학교진로지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 진로장벽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변수 사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은 모두 통제하였다. Model 1에 학교진로지원, Model 2에 학교진로지원 및 진로탐색행동, Model 3에 학교진로지원, 진로탐색행동과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변수로 넣어 확인하였다. 조절효과가 성립하려면 첫째, 각 Model의 유의확률은 .05보다 작아야 하며 둘째, Model의 설명량(R^2)이 순차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각 Model의 유의확률이 모두 .05보다 작지 않았다(Model 1 $p < .001$, Model 2 $p = .871$, Model 3 $p = .807$). Model의 설명력이 순차적으로 증가하지 않았기에(Model 1 $R^2 = .165$, Model 2 $R^2 < .001$)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5. 학교진로지원, 진로장벽, 진로탐색행동 사이의 상관(*r*)

	학교진로지원				진로장벽								진로탐색행동				
	정보적 지원	실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총	대인 관계 어려움	자기 명확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 갈등	직업 정보 부족	나이 문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 부족	미래 불안	총	자신에 대한 탐색	직업에 대한 탐색	총
학교 진로 지원	1	-															
	2	.84***	-														
	3	.81***	.82**	-													
	총	.93***	.94**	.95**	-												
진로 장벽	1	.17**	.14*	.16**	.16**	-											
	2	.14*	.13*	.16**	.15**	.54***	-										
	3	.04	.03	.09	.06	.32***	.43***	-									
	4	-.03	.03	.06	.03	.32***	.45***	.39***	-								
	5	-.02	-.04	-.01	-.02	.23***	.41***	.29***	.27***	-							
	6	.11	.15**	.21***	.17**	.33***	.44***	.43***	.45***	.22***	-						
	7	.11*	.15**	.16**	.15**	.38***	.45***	.45***	.50***	.20**	.54***	-					
	8	.10	.02	.04	.06	.09	.16**	.13*	.20**	.25***	.10	.15**	-				
	9	-.06	-.10	-.05	-.07	.26***	.44***	.64***	.40***	.46***	.40***	.39***	.24***	-			
총	.09	.08	.13*	.11	.58***	.73***	.71***	.67***	.58***	.65***	.68***	.44***	.75***	-			
진로 탐색 행동	1	.43***	.42***	.42***	.45***	.06	.04	.10	.02	-.21***	.15**	.15**	-.11	.03	.03	-	
	2	.31***	.32***	.31***	.33***	.09	.04	.14*	.08	-.27***	.26***	.15**	-.08	.03	.07	.78***	-
	총	.38***	.38***	.38***	.41***	.08	.04	.14*	.06	-.26***	.23***	.16**	-.10	.03	.05	.93***	.96***

* $p < .05$, ** $p < .01$, *** $p < .001$

표 6. 학교진로지원과 진로탐색행동에서 진로장벽의 조절 효과 (n = 291)

단계	요인	β	t	F	R ²	ΔR^2
1단계	학교진로지원	.396	7.563***	57.196***	.165	
2단계	학교진로지원	.395	7.485***	.027	.165	< .001
	진로장벽	.010	.163			
3단계	학교진로지원(A)	.340	1.475	.060	.165	< .001
	진로장벽(B)	-.030	-.175			
	A*B	.001	.245			

*p < .05, **p < .01, ***p < .001

논의

학교진로지원 및 진로장벽이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탐색행동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진로지원이 높으면 진로탐색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의 진로 관련 지지가 진로탐색행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참여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효과를 준다는 선행연구(김헌수 외, 2004)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학교진로지원의 모든 하위요인과 진로탐색행동의 모든 하위요인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진로탐색행동에 있어 학교의 영향이 상당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학교진로지원 서비스 이용한 경우 진로탐색행동이 많이 나타난 것과는 연관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의 진로를 위한 탐색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다르게 학교의 진로지원서비스 이용률이 낮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률이 약 25%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절반도 안 되는 인원만이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학교진로지원서비스의 이용률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진로탐색행동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의 진로지원서비스를 왜 이용 안 하는지 구체적으로 찾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학교진로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때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학교진로 지원은 여러 일반적 사항에 따라 차이를 보였

기 때문이다.

우선 학년에 따라 학교진로지원의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3학년이 4학년보다 학교진로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은 4학년으로 갈수록 취업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압력을 받아서 진로준비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김형균, 2003)

학년뿐만 아니라 단과대학에 따라 학교진로지원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공과대학, 간호대학이 문과대학보다 학교진로지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단과대학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진로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취업률이 높은 단과대학이 더 많은 진로지원을 받는 이유는 이윤구 외(2013)가 말했듯이 취업률 상위권 대학이 취업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 또는 학과를 특성화하고 있는 것, 즉 취업률이 높은 단과대학이 더 많은 취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공학-건축 계열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모 대학의 인증제도가 그 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연구들이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률과 지원에 관한 관련성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진로장벽에서도 단과대학별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전공별로 진로장벽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강운심, 201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진로결정 여부에 따라 학교진로지원에서의 차이가 나타났다. 진로를 결정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학교진로지원을 더 많이 받은 것

으로 나타났다. 진로탐색행동에서도 진로결정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지영(2005)에 따르면 진로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갖지 못할수록 직업탐색행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에 따라 진로를 결정한 경우 자신의 진로에 대해 학교진로지원도 받고, 진로탐색행동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학교진로지원은 아니지만, 본인이 지각하는 경제 수준에 따라 진로 장벽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다는 사실 역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에서만 차이가 발생했지만, 경제 수준과 진로탐색행동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밝힌 논문(이현진, 2009)이 있기 때문이다. 이현진(2009)에 의하면 경제 수준이 좋을수록 진로탐색행동이 더 높았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탐색행동 전체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아마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상대적으로 상위권 대학이라 진로탐색행동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한 탓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 수준과 진로탐색행동 사이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후속 연구에서 역시 이를 고려해서 학교진로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진로지원과 진로탐색행동 사이에서 진로장벽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진로지원을 받아도 진로장벽이 높으면 진로탐색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가정했다. 높은 진로장벽이 진로탐색행동에 있어 방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했지만,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장벽과 진로탐색행동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진로장벽의 수준이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는 진로장벽이 있어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유미정, 2008). 즉, 진로장벽이 존재해도 개인이 이를 극복할 여력이 있다면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난인 요즘 진로장벽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여 주요 변수로 삼았으나, 진로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더 중

요한 변수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기 위해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진로장벽의 유무와 상관없이 학교진로지원이 있으면 진로탐색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진로에 있어 학교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해준다.

최근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간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불안감도 증가하고 있다(김정수, 이석준, 2016). 취업난이 심화됨에 따라 취업준비생들의 취업스트레스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경원, 김은주, 2011). 본 연구에서는 대다수가 대기업 등 취업을 향후 진로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가 취업을 희망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취업스트레스를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업스트레스는 우울로 이어지기가 쉬운데(최경원, 김은주, 2011), 이 때 낮은 진로탐색행동이 취업스트레스를 더욱 높인다(김명옥, 박영숙, 2011). 이때, 진로탐색행동을 높인다면 개인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취업스트레스 역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진로탐색행동을 높이기 위해 학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교의 진로지원서비스를 통해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대학의 대학생만을 표집 하였고,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학과가 많이 표집되어 결과가 왜곡되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더 많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진로탐색행동에 유의한 영향 요인들을 모두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진로에 대한 적극성,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요인과 진로탐색행동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 셋째, 학교진로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후속 연구에서 이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그간 많은 연구가 이뤄지지 못한 학교진로지원과 진로탐색행동 사이의 관계를 파악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개인의

진로가 결정되는 시기인 대학생 시기에 진로탐색행동의 중요성을 밝히고, 특히 학교의 역할이 중요함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학교 진로지원 서비스의 이용률을 높여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진로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더욱 많은 학생들이 진로 결정과 진로탐색행동에 도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학교진로지원과 진로장벽,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진행했다.

연구 결과, 학교의 진로 지원이 높은 경우 진로탐색행동을 높여, 대학생의 진로에 도움을 줄 뿐 만 아니라 취업스트레스 역시 완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 특히 학교 진로지원의 모든 항목이 진로탐색 모든 항목에 대하여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학생들의 진로에 있어, 학교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Y대학교 대학생의 학교진로지원서비스 이용률은 현재 약 25%로 매우 낮은 실정에 있으며, 학교진로지원 이용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추후 표본 집단을 더 확대하여, 학교 진로지원서비스의 이용률이 낮은 근본적 원인을 밝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또한 원인을 규명할 때, 대상자의 학년, 소속된 전공, 진로 결정 여부에 대한 세부사항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교육과학기술부 2016. 고등교육법: **교육과학기술부**; 2016 [cited 2016.05.27.].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법령/고등교육>

법/(14148,20160529)

2. 강윤심. (2010).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광민호 (2012). **서울대학교 학생의 진로탐색 행동과 진로탐색효능감, 부모애착, 학교진로지원의 인과적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4. 김명아, 임지영, 김숙영, 김은정, 이종은, 고유경 (2004). **간호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도와 영향요인**. **정신간호학회지**, 13(4), 383-391.

5. 김명옥, & 박영숙. (2012).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11), 69-90.

6. 김민정, & 조공호. (2009). **취업준비생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진로태도 성숙도가 무망감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4), 47-62.

7. 김선중. (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0-36.

8. 김은영. (2002).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 (KCBI) 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219-240.

9. 김정수, & 이석준. (2016). **취업준비생 토픽 분석을 통한 취업난 원인의 재탐색**. **경영과 정보연구**, 35(1), 85-116.

10. 김현수, 장기명, & 이난. (2004).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적용이 대학생의 진로 및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18(1), 261-278

11. 김형균. (2003).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의 성별, 학년별 관계분석**.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노연희, & 장재윤. (2005). **대학졸업자들의 진로미결정 및 직업탐색행동이 개인-직무적합과 개인-조직 적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4), 23-43.

13. 문인오, & 이경완. (2010).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6(1), 83-91.
14. 박고운, & 이기학. (2007). 진로결정자율성 수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409-422.
15. 박수길, & 이영희. (2002).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41-160.
16. 박주현, & 유성경. (2012). 대학생의 소명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일희망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2), 543-560.
17. 손은령. (2002).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개인, 심리적 변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415-427.
18. 송현아, 유순화, & 윤경미. (2010). 연구논문: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자율성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7(11), 264-289.
19. 안혜진, 김은정, 황진영, & 이승희. (2014). 의과대학의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Korean J Med Educ*, 26(3), 209-216.
20. 유미정. (2008).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전문대학 비서학 전공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유승혜. (2011). 비서학전공 전문대학생들의 진로장벽과 취업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직업탐색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비서학논총*, 20(3), 97-116.
22. 유채은, 조규판. (2012). 대학생의 성인애착, 진로장벽,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2(4), 143-166.
23. 이경아, & 김진현. (2015).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결정몰입에 대한 인식.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12(1), 42-49.
24. 이운구, 김용범, & 나준희. (2013). 취업률 제고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5. 이지영, 장재윤, & 김명언. (2005). 대학 4학년생들의 진로미결정, 직업탐색행동 및 구직 성과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1), 1-23.
26. 이현림, 김순미, 천미숙, & 최숙경. (2008). 대학생의 진로장벽 지각, 진로스트레스, 진로발달 및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21(4), 59-80.
27. 이현림, & 송재영. (2004).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5(2), 393-407.
28. 이현진. (2009).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9. 조희, & 이규영. (2006). 간호대학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2), 163-173.
30. 최경원, & 김은주. (2011).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취업스트레스, 우울과의 관계. *대한보건협회 보건종합학술대회*, 2011(단일호), 35-36.
31. 최동선, & 정철영. (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 요인 및 애착의 관계 분석. *직업교육연구*, 22(1), 115-143.
32. 최윤정. (2015). 대학생 진로 문제의 개념화를 위한 진로 미결정의 잠재요인 탐색. *상담학연구*, 16(3), 175-193.
33. 탁수연, 박영신, & 김의철. (2007).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관련 변인의 관계 분석: 부모자녀관계,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공부시간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16(1), 143-154.
34. 통계청. 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2016 [cited 2016.05.27.]. Available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07&vw_cd=&list_id=

&scrId=&seqNo=&lang_mode=ko&obj_var
_id=&itm_id=&conn_path=K1&path=#

35. Cohen, S. (1988). Psychosocial models of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the etiology of physical disease. *Health psychology, 7* (3), 269.
36. Swanson, J. L., & Tokar, D. M. (1991).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8*(1), 92-106.
37. Stumpf, S. A., Colarelli, S. M., & Hartman, K. (1983). Development of the career exploration survey (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2), 191-226.